발간자료

• **기아_BUY/21만원:** 1) HEV/EV 판매 모멘텀 부각 2) 미국내 M/S 반등이 뚜렷해짐(6% 초과) 3) 화성 EVO Plant 가동에 따른 EV사업 가치 상승 반영 필요. 26년 주력으로 판매증가에 기여하는 라인업은 텔룰라이드, EV2, 셀토스이며 미국과 유럽, 인도에 집중 투입. 기아의 PBV시리즈가(PV7 27년, PV9 29년 출시) 대형 세그먼트 특성상 미국시장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자동차/2 차전지 유지웅)

• **롯데렌탈_BUY/5.3만원:**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적정주가는 53,000원으로 상향. 밸류에이션에 반영한 P/E는 기존대비 약 20% 상향한 12배 적용. 4Q25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7,264억원(YoY +0.8%), 793억원(YoY +10.3%)기록. 오토렌탈 장기부분이 전사 실적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 4Q25기준 장기부분 보유대수는 20.6만대(YoY +6.2%)를 기록
(자동차/2 차전지 유지웅)

• **엔씨소프트_BUY/30만원:** 4Q25P 연결 매출액은 4,042억원, 영업이익은 32억원으로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하회. 아이온2 매출이 이연되며 이익 규모 축소되었으며, 아이온2의 2/10 기준 매출은 700억원. 2026년 매출액 2.5조원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IP 글로벌 확장, 신규 IP 출시 또는 모바일 캐주얼 시장 진입 필요
(인터넷/게임/레저 김혜영)

• **CJ대한통운_BUY/18만원:** 4Q25 영업이익 1,596억원(+3% YoY, 이하 YoY), 컨센서스 +6% 상회함. 사상 최대분기 실적 달성. 2025년부터 주7일 배송시스템을 도입해 탈쿠팡 회원을 흡수 중. 4분기 물동량은 7% 증가, 1분기에도 10% 이상 증가 전망. 글로벌사업은 포워딩 시황 악화에도 창고업 확대로 마진 개선이 확인됨. 4분기 미국법인 opm 6% 달성. 2026년 투자포인트: 1) 택배 시장점유율 확대, 2) 글로벌 미국/인도 법인 성장. 투자의견 Buy, P/E 13배 적용. 적정주가 18만원 상향
(운송/로봇 오정하)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8.7%	HOLD : 11.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